

‘노인 인구’ 1위 전남, 어르신 복지 1조6000억 투입

65세 이상 47만여명 전체 26.1%...돌봄서비스 등 43개 과제 추진 일자리 발굴 ‘시니어 클럽’ 시·군 설치, 양로시설 확대·연료비 지원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1%에 이르는 전남의 노인 복지 예산이 올해 1000억원이나 더 편성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노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47만874명으로 전체(180만4217명)의 26.1%에 달해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10조

7044억원)의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남도는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양적인 성장과 함께 올해 추진되는 주요 노인복지 시책에는 질적 성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년 빈곤 해결과 열악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득 보장 관련, 돌봄서비스 및 생활 개선 등과 관련 4개 분야 43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어르신 소득 보장의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단독 33만4810원, 부부 53만5680원으로 전

년보다 3.6% 인상해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7000명이 늘어난 6만4000명으로, 참여자 활동비도 공익활동형 월 2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만원으로 올려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하는 시니어클럽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군에 1곳씩 설치 완료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 투자비도 계속 지원한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대상자가 2000여명이 늘어난 6만명에게 제공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4만3000명을 대상으로 대내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추진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1100명에게 반려로봇 인형을 보급하는 등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한다.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7500여명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도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어르신 영양 상태와 건강 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도 꼼꼼하게 살핀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와 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지원을 위해 올해 1200억원, 양로시설 10곳에 82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13개소에 31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기 142대를 노인생활시설 등에 설치하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

양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밖에도 어르신의 여가·취미활동 중심 역할을 할 경로당 9200개소에 14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방비와 냉방비도 지급해 한랭·온열질환 사고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관에 어르신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세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르신 복지를 위해 올해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더욱 공경하고 세심하게 살피며 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연으로 건강 사회 만들어요” 14일 오전 광주 서구청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청사 1층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직장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청년, 일경험 상담 받으세요

19~21일 시청서 드림만남의 날...330개 부스서 직무 상담

광주시는 “19~21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림만남의 날은 청년의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고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참여 사업장)와 구직청년의 일경험 상담을 연결해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 사회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95개 드림터가 참여해 330개 부스에서 직무 등에 대해 상담한다. 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www.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7만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3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광주시는 2017년부터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관심 있는 직무에서 실제 일경험을 하며 직무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

시군·민간기관 협력방식...22일까지 제안서 접수

전남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지난해 546명의 취업 및 창업에 기여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나선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 도입했다. 시군이 직접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안하면 전남도에서 선정해 지원한다.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2월 말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군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시군비 포함 10억원이다.

사업 유형은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 구인·구직 매칭 지원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지역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도내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시군과 민간기관은 전남도 일자리경제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약사 출신 정현철씨

광주시는 14일 “제10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에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년간 감염병, 먹거리, 대기, 토양, 가족 전염병, 야생동물 등 다양한 분야 시험 검사 연구 등을 총괄한다.

정 원장은 조선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 약사회장, 마약 퇴치본부 광주·전남 공동본부

장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정 원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체계 마련은 물론 창의적 연구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구성원들과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공무원직 대체인력 30명 채용

광주교통공사는 “공무원의 휴가 및 병가 등 유고발생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인력풀(Pool) 3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역무직 16명, 미화직 11명, 시설·경비직 2명, 정비직 1명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2024년 2월 8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서류전형)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돼 있거나 공고일 전일까지 3년 이상 광

주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학력제한은 없다. 응시원서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공사 본사 4층 총무팀(광주 서구 상무대로760)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후 최종합격자는 3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에서 확인하거나 총무팀(062-604-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